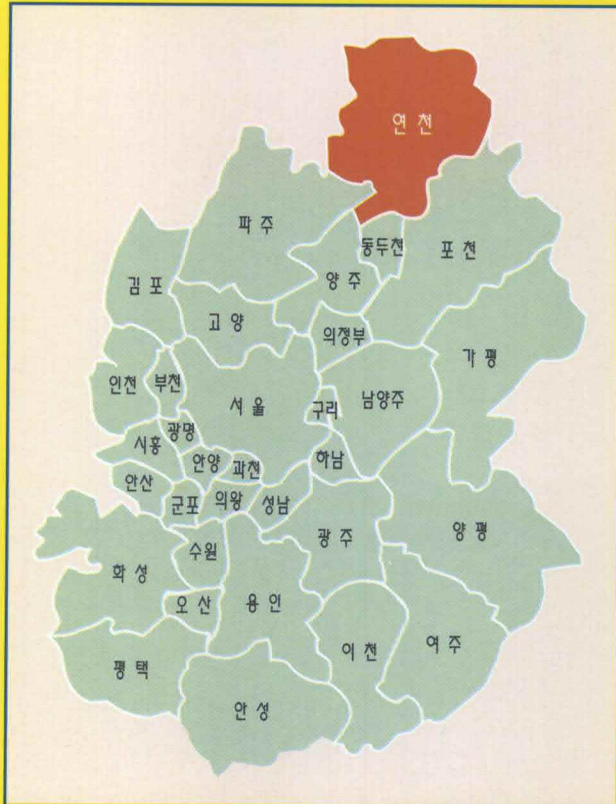


연천군

쌍거리

숨은터의 민속

연천 보막이 축제



상거리

1. 전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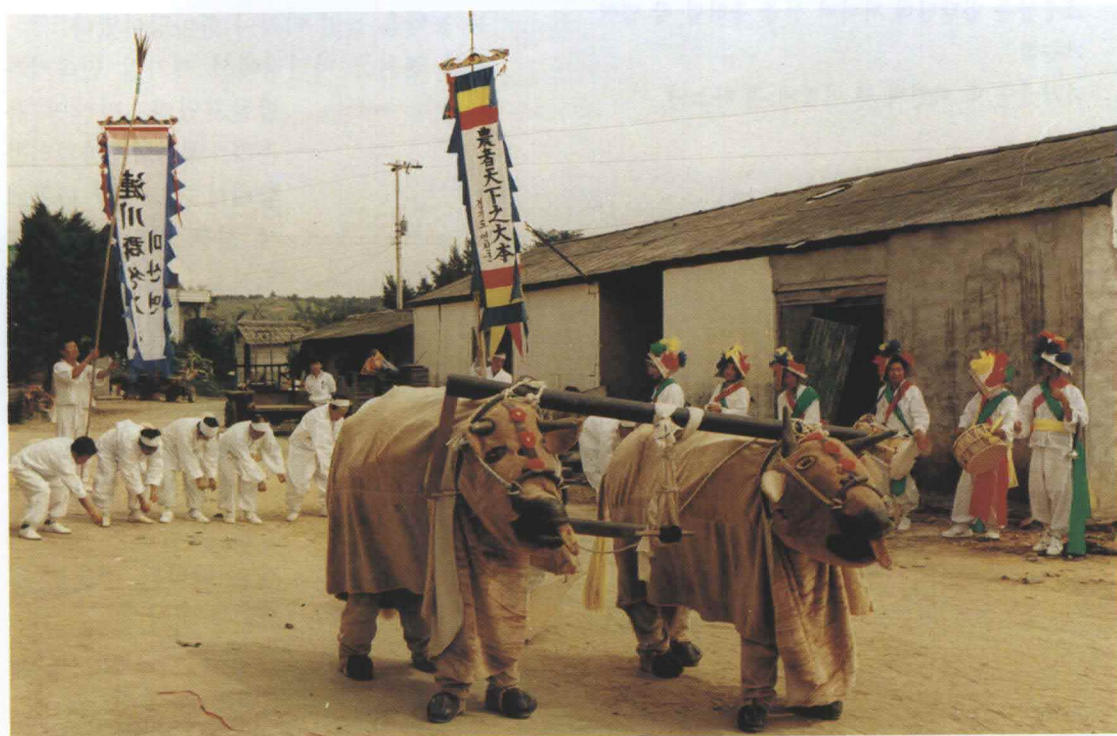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2. 유래 및 해설

우리 연천에서는 옛적부터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왔다.

이 노래를 발굴하여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제 8회 대회에 출연하였다. 연천군 대표로 출연한 날짜는 1991년도였다. 이 민속을 발굴할 때도 역시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았다.

노래를 발굴하고, 소를 만들고, 종댕이와 재보금이(바구니)를 만들고, 보연장을 마련하여 민속을 만들었다. 이 때에 한 쪽에서는 밭을 갈고, 그 옆에서는 조를 심고 콩 심는 장면이 매우 훌륭한 민속이 되었다. 밭을 갈



며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개나리소리)라고 한다. 경부가 노래를 하는데 경부는 밭 가는 사람을 이른다.

이러외나, (외나라는 것은 밭가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소가 안소라 하는데 이 안소에 대해서 '외나'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소는 '마라소'라고 한다. 마라소에 대해서 '마라'라고 한다. 개나리 소리는 길게 뉘두리처럼 청승스럽게 한다.

개나리 소리

이로외나 외나 외나루이소 외나루가자
 이러마라 마라로 가자. 이러 이소야 금바로 가자.
 장대같이 곧은 밭이랑 활동같이 굽어진다.
 네 팔자는 한 쌍저리 소요,
 네 팔자는 밭같이하는 경부 팔자란다.
 이러, 이소 쌍저리 갖춰 메고 안탐은 얹어잡고
 마라탐은 자쳐두고 두리 들들자 갈아보자.
 이소들아 어서가자.
 초승달은 반달인데 저너머 산을 흘러덤 잘 넘어
 가는데
 너희들은 네 다린데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러, 이소 외나 이소야,
 높은 들은 돌려 딛고 얇은 들은 넘어 가자.
 이소들아, 너는 늙어 죽어지면 양반상에 둘러
 앉지만
 우리인생 죽어지면 북망산천에 깊숙히, 응~응
 (비읍)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지.
 외나이 이소들아 가대지 마라.
 흥두깨 같이 곧은 밭이랑 망가진다.
 마라마라 이소 일곱발 멍에 줄을 업어걸고 자쳐
 걸고 한 멍에 둘러메니 이것이 한짝이다.
 외나루 이소야 타나갈 때는 이안소 네가 좀 앞
 서가고
 마라 들어올 때는 이라마소 좀 나선다고.
 이소너 잘 가고 나 잘 가면 하루같이 밭 한때기가
 한 나잘 한 참이면 다갈고 가지

이같이 밭을 갈고 신금질을 다한 후 소를
 풀어 놓면 소는 소끼리 싸움을 하고, 한편에
 서는 농악을 놀면 이것이 한마당이였다.

우리 연천군 마전땅에서 세가질 민속기가
 발굴되었다. 미산면 유
 촌리, 백석리, 양기리를
 합해서 조그마한 마을에
 서 젊은 사람들은 대개
 도시로 가고 오십 이상
 이 대부분이며, 특히 농
 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
 서 십사년간이나 이러한
 민속을 발굴하여 출연하
 였다는 것이 우리 마전
 땅에 사람들이 신뢰가
 깊고 단합된 마을로 평
 가하는 바이다.

中山 이 재 순



숨은터의 민속

1. 전승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隱岱理. 숨은, 터대) 숨은 터가 된 것이고 본래 옛 지명은 전곡 은대 양촌을 계곡동이라고 하였다 한다.

2. 유래 및 해설

지금으로부터 육백년 전 이씨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태조가 고려를 정복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도읍을 한양이라 하여(지금의 서울) 고려도읍지인 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했다. 왕위 칠년 만에 둘째 아들 정종대왕(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던 중 왕자인 방원이 평소에도 그 성품이 대쪽같이 강하고 기상이 성격이 맹호같아 누구라도 그를 경계하여 보았으니 과연 조정이나 왕실에 많은 간섭을하여 자기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조정에 충신도 불사하고 형벌을 일삼는 바 정종은 특별히 왕위를 아우인 방원에게 넘겨주니 왕실에는 갑자기 상왕이 둘이 되었다.

이때 태조는 아들 태종대왕이 된 방원의 처사가 보기 싫어 왕실을 떠나 옛 향리인 함흥으로 가 여생을 조용하게 마치리라 결심하였던 어느 날 심복 내관과 같이 암행의 길을 평민차림으로 나섰다. 가다 보니 해는 석양에

이르고 한 정자가 있어 쉬어 가자고 하며 이곳이 어디냐고 내시에게 물으니 “양주땅 동두내(동두천)라 하는 줄 아뢰요”했다. 이 곳 정자 밑에 맑은 샘물이 바윗 사이로 용솟음쳐 나옴을 보고 물이 먹고 싶구나 함에 내시;한 표주박 떠 올리니 그 물 맛이 일품이다하며 마셨다.(지금의 여수동 축제의 곳) 다시 길을 재촉하여 한탄강에 이르니 해는 지고 어둠이 시작되어 바빠 강을 건너 보니 연천은곡동(지금의 은대리)이었다. 한골짜기 오두막집에 불빛이 보여서 찾아가 주인을 불러 일숙을 청하니 집이 누추하고 협소하다며 격정스런 표정을 하더니 “이리 따라 오십시오”하고 한 대가집 행랑채로 인도하더니 집주인과 뭐라하고 가더라. 태조일행은 주인의 접대를 잘 받고 이튿날 다시 행차하려 하니 모두 발병이 나서 길을 나서지 못하고 하루 하루 한 것이 무려 보름동안을 머물고 이 곳에 일시적인 기적을 남기고 함흥으로 떠나갔다.

이때 조정에는 태조 상왕이 갑자기 없어졌음으로 아들(방과)상왕과 태종대왕(방원)이하 국무대신들이 소동을 피우며 대변이라 하고 급히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발을 놓아 탐색 끝에 함흥땅에서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모셔오도록 했다. 유명한 인사를 뽑아 보냈으나 한동안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거듭 2차 3차 줄곧 보내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것은 태조가 오는 족족

죽인 것이다. 이것이 함흥차사(함흥은 슬픔으로 죽는다고 부친 말)라 한다. 결국은 어느 지혜있는 신하의 묘계로 태조는 환도하였고, 이 사실이 전파되어 전 국민이 알게되는 차제에 이 고장에 한 선비가 임금에 은거한 곳은 성지(聖地, 거룩한 땅)라 하였다. 이곳 지명을 숨은 터라 하고 임금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뜻으로 치성스런 대제를 그곳에 올리고 동민을 초청하여 사실을 전하며 그날에 풍성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곳이 치성제의 시초로 발족되어 연례행사를 해 오면서 동민들의 신앙이 깊어졌다. 해가 갈수록 민속놀이 확대하여 즐겨왔으나 일제치하에 와서 탄압되어 사라진지 칠십여년이 되고 다만 이곳에 지명만 은대리(隱岱里)라고 알고 숨은 터라는 사실도 모름이 이 고장사람들의 지금 현실임을 알리는 바요 그 민속놀이의 종목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3. 줄거리 및 내용

매년 정월 초부터 전 동민이 농악을 앞세워 걸립으로 쌀과 돈을 걷어 자금을 마련하고 행사 계획을 짜고 그날 극진한 치성과 민속놀이 유쾌한 잔치를 치르고 상·하촌의 1년 동안 화합과 안길(安吉) 풍년을 기대하였다.

1) 숨은터의 치성제(전동민이 기원함)

2) 두레싸움

(1) 윗동네 농부와 농악부

(2) 아랫동네 농부와 농악부 논 때는 들에서 상·하촌 격투) 논 때는 농요 선

소리와 후렴 요

3) 직계발 격투(상하촌 단체전)

4) 장치기

나무꾼들이 모여 지계를 지고 나무하러 가다 쉼터에서 지계 벗어 놓고 작대기로 장치기 한다.

5) 숨은 터 한마당(전동민)

연출자의 의상은 농군차림으로 일치하고 유쾌한 선비 차림을 한다.

3) 내 용

(1) 치성제(致誠祭)

극진한 정성을 드려 제사지낸다는 뜻으로 태조대왕이 이곳에서 잠시 애환을 담고 은거하였음을 먼저 추모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길 및 풍년을 기원한 목적이 있었다 함이다.

(2) 두레싸움

두레는 논농사 고장에서 모를 심고 난 후 25일 내지 한달간에 모가 자라면 초벌 논매기를 하는데 오, 유월 퇴약별 밑에서 논바닥을 호미로 벼포기 사이마다 파기가 힘들어서 동네전체 공동으로 농악을 내세워 풍악과 더불어 흥겹게 일하는 일꾼 조직체의 옛 칭호로 두레라고 한다. 논에서 열심히 풍악을 갖추어 일하다가도 타동네 두레패가 오면 일종의 텃세 비슷한 권리를 부려 싸움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농악 재비꾼은 흥겹게 풍악을 울리며 논바닥을 이리저리 옮겨 흙을 밟아 머무르게 한다. 이로 논매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3) 직계발 격투

직계발 격투는 당초에 동리 나무꾼들이 먼 산으로 가서 산밑에 쉴 때에 쉬는 동안 서로가 묘기 자랑을 하는 일종의 놀이로 자기가 지고 간 지계에 올라서서 지계 동발을 왼쪽 오른쪽으로 엇갈려 내디더 나가며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놀이다. 나무를하여 지고와 일과를 마치고 이를 밭에다 만들어 달고 하계끔하여 직계발로 그날의 주놀이가 되었다.

(4) 장치기

이는 본래 장타이다. 지팡이장 장치기 놀이로서 역시 시골 나무꾼들이 산에 가다 쉴터에서 지계를 벗어 놓고 한참씩 장난을 하는 놀이로서 지금의 아이스하키가 이곳을 본단 운동의 종목이 아닌가 한다. 그 당시 현실을 그려 본 즉 나무꾼들은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자는 동군 진자는 서군으로 편을 짜고 지계로 골문을 적당한 거리에 놓고 큰 공방울을 가지고 지계 작대기론 상대방의 지계놓은 사이(골문)로 쳐 넣으면 승리의 점수가 되어 승부를 가린다.

(5) 숨은 터

이 한마당은 그날 행사 모두의 마무리 놀이로 전 동민이 이날을 기해 만사 형통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놀이를 한다.

4. 구 성

1) 치성제, 전통민 전원(출연자 일동)

(1) 유림(선비차림) 8명

(2) 농부 재비꾼 2개조(윗마을 1조 아랫마을 1조) 별도 총지도 쇠 1명, 조의 인원(쇠 1, 징 1, 장고 3, 농기, 영기 4, 2개조) 합 24명

(3) 두레 싸움, 농부(논매다가 싸울 사람) 위 아랫마을 각 15명 합 30명

(4) 직계발 격투, 지계꾼 윗마을 15명, 아랫마을 15명 합 30명.

(5) 장치기, 나무지계꾼만 윗마을 15명, 아랫마을 15명, 합30명.

총계 121명

※ 농부 30명이 다, 라, 마 세종목을 거듭 출연하고, 가, 나의 출연자 합 33명으로 인원구성 하면 63명이면 된다. 예비군 합 70명.

5. 소요비치물

- 1) 용대기1본
- 2) 농 기(농자천하지대본)2본
- 3) 영 기2본
- 4) 식물악기2조
- 5) 호미(논매는 호미)30개
- 6) 직계발30조
- 7) 나무지계20개
- 8) 장치기 공1개
- 9) 농군복55벌
- 10) 선비복(옷갓차림 1습)8벌

연천 보막이 축제

1. 전승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보막이 마을

2. 유래 및 예설

보막이라 함은 하천을 가로 방축하여 물을 하천에서 농토로 끌어대어 일년간 농사를 짓

는 것이다. 이곳에 옛부터 가장 큰 연중 행사로 보막이 축제가 이루어져 전하여 왔으나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시멘트로 방조하여 농사를 지은 이후로 근 40여년 동안 보막이 축제의 종적이 사라져 생각조차 잃고 있는 오늘날 출현을 함이다.

보막이는 오늘날의 댐이 된 근본방식이라고 생각되나, 옛 농사의 방식도 바뀌고 그 농구도 사라지고 있다.



이곳은 연천군 연천읍 북단에 위치한 마을 도신리라 하며 동으로는 보개산이 하늘높이 웅장한 모습으로 솟아있고 그맥이 북을 막고 서로 뻗어나가며 지맥이 남으로 흘러 굴곡을 이루고 솟아 있는 산은 이 고을 연천 남방 위치에서 연천 사람에게 군자의 기상을 입혀주는 유명한 군자산이 있다. 동북서 세곳산 사이에 흐르는 냇물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한탄강에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흐르고 내동편은 전부 밭으로 되어 있고 내서쪽이 논과 주택을 이루고 있으며 수레울 냇물을 농수로부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레울 냇물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라 할 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 보를 막지 않으면 농수와 식수관계로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보막이가 연중행사거리로 등장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또 해마다 보를 막는 원인을 보면 장마철에 물이 불어 거센 물결로 인하여 뚝이 패이고 거석이 상하여 무너져 이듬해에 다시 하게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이 예부터 전래되어 내려왔다.

또한 촌민에 안길을 겸하여 성의를 다하고 모든 재난의 액을 막기 위하여 치성을 거대하게 함에 있어 농악을 주로하여 유림이 합동으로 부락 수호신에게 고사와 축사의 기원을 유학의 옛풍습으로 행하였다. 보막이 일을 하고 보막이가 끝나면 이 보를 이곳 토지 지신에게 보호 의뢰의 축제를 올린 후 유쾌한 한마당 잔치를 벌려 즐겁게 먹고 마시고 행사를 이끌어온 풍습의 민속을 구현 하였다.

3. 줄거리

첫째: 동리를 출발하여 동리의 수호신인 성황 및 장승에게 성심껏 치성을 올

리고 수레울 보막이 장소로 행한다.

둘째: 보막이 장소에 이르러 작업시작에서 곡괭이 가래로 땅을 파고 지게와 목도는 머돌과 술가지 거석을 저내리고 쌓는다.

셋째: 보막이를 완성하고 이완성된 보를 신에게 보호하여 줄 것을 기원하는 제례를 거행(지금의 준공식)하고 한마당 흥겨웁게 마시고 놀며 막을 내린다.

첫번째: 행사그림 동구밖서낭(수호신)장승거리

옛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함이 많았다. 어찌면 이또한 당연 할지도 모를 일이다. 역학에 하늘은 천신 땅을 지켜라 하였고 집에는 방위목은 성주라 하고 아래목은 삼신자리요 부엌은 조왕 장독대는 토왕이 있다 하였으며 산에는 산신령 물에는 용왕 등 등의 각 수호신이 있다고 믿고 말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에서 동민 전체를 수호하는 기원의 터를 동내 입구에 자리잡아 놓고 혹 동중이 합동제도하고 혹 개인이 자기집만을 기원하기도 한다. 일터로 나가다 고사를 올리고 보막이 장소에 옮긴다.

두번째: 수레울내 보막이 장소 보막이 민요 총책임자 이르는 소리

여보시요 농부님들 이내말을 들으시요 자고선사 신농씨가 교민화식 내어놓고
세상에다 전했음을 이여받은 고씨어른 농사전업 하게하여 우리에게 전했도다
고관대직 귀한몸도 먹지않고 못살리라 종사천하 근본되닌 이것저것 만사중에
농사밖에 또있는가 농사일은 한때이며 때이르면 패농하니 부지런이 일해보세

아-그말마소(일꾼들말)

여보시오 그말마소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
실 높은집에 편안하게 살면서도 아무걱정 하나
않고 고랑진미 먹고산다 애고애고 슬픈인생 남
난시에 나도넣고

난난시에 그날전만 이내몸은 웅이나빠 무거운
짐 등에지고 젓먹던힘 다들이며
산비탈길 내려오니 비지땀이 쏟아진다 우리부
모 낱알고서 애지중지 길으면서
부지런이 공부하여 장원급제 하거들랑 더도말
고 덜도말고 연천고를 원이되여, 도움주고 많은
적덕하겠는데 소년시절 때를 잃고 못배워서 이
럽이다.

아-하-여보게 친구-그도 그랬타 하거니와 요배
말을 들어보소

예작말에 이르기를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
이 누가있고 의사만 병고치면
북망산천 왜생겼나 천륜으로 정한운명 너도나
도 모름이요 무식하여 모르거든
전설따라 살으리라 잘난사람 잘난대로 못난사
람 못난대로 높고알고 마련대로
누구이든 그릇대로 선비농군 마련대로 사주팔
자 못속인다 자기직분 충실하면
너나좋은 인간사회 밝아지고 악도풍습 사라져
서 좋은인심 다시넣고 국태민안
도오리니 ;기왕지사 나온몸들 떠맡갖지 말것이
며 농사풍류 기쁨속에 말은일을
완성하고 금년농사 대풍되면 너도부자 나도부
자 부자사람 따로있나 잘살면은
부자이지 어서빠빠 돌돌아라(10분간 노래)

세번째 : 준공식축제

보막이를 완성하고 이곳 토지 지신에게 수호
의뢰의 제례를 올리고 한마당 잔치 벌인다 여
기서 알아야 할 것일 바로 토지지신 제이다.
우리의 제사가 지수가 많고 그밖에 축복을 기

원하는 방식 재액을 물리치는 방법은 유교계
불교 또는 사교 '무당기타신통일' 등 동서로서
의 격식일 혼합된 상태이다. 하계에서도 문학
적인 유교의 전통은 멀리하고 사도(私道)의 전
통민속만 주함이 아닌가 함이다.

본제는 수호신에게 의뢰와 더불어 이로 인
한 풍년을 기원하고 따라서 피로를 풀고 화
목을 다지는 제사로서 선비들과 농민이 옛문
학의 전통을 따라 엄숙하게 거행하였었다.

一. 祭需는 牲幣로서 魚脯(生) 肉脯(上同)
魚혜(上同)肉혜(상동)의 四 脯 혜이고

果는 乾棗(대추) 黃栗(통밤) 양仁(은행 菱
仁(통대추)의 四種이며

案는 竹俎(죽순) 芹俎(미나리) 비俎(부추)
靑俎(청무) 四種이다.

보와 궤를 쓰는데 보에는 울무쌀을 담아놓고
보에는 지장쌀을 담아놓는다.

牲은 肫猪頭를 올리고 食염 自布를 썼다.

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執事者 명칭과 명수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典祀 贊引
贊唱 奉香

奉爐 奉爵 執酒注 奉炙 典炙 總十七名이 분
담집하 함이다.

三. 陳設(진설)

주자가례의 문헌을 준한 지적문

진설은 품목을 음향에 따라 놓는다. 양은
동편 음은 서편으로 예를 들어 제상위에 진
설하는 것이나 이조중엽에 제례가 혼돈이 되
었다고 한다.

• 陽東陰西(양동음서)

양동음서는 동은 양이고 서는 음이 된다 동
고서비라하여 동이 높고 서가 낮다 하였
다.(어느 제사진설이건 다 해당된다)

• 生東熟西(생동숙서)

생것은 동편으로하고 익은것은 서편에 한다
생것과 익은 것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

• 조동습서

마른 것은 동편으로 하고 젖은 것은 서편으로 한다.

• 左脯右脰(좌포우혜)

포는자로하여 제일 마른것이 된다 누구는 신위의 편 누구는 집사자의 편하나 포는 건이라(건포)즉 마른 것으로 조동이고 신위의 좌가 되며 혜는 절인것 (젓갈)으로 습하여 (젖은) 서가 된다.

• 魚東肉西(어동육서)

물고기를 동쪽에 놓는 원인은 옛 성인의 원리에서 물은 하해(河海)를 이룬 것으로 큰 곳에 산다하여 높은 쪽을 택하므로 서이고 육은 육지산야(陸地山野)에 산다하여 서편으로 하는 리체를 논한 것이다.

• 병동면서(餅東麵西)

떡은 동편 국수보다 건한 것으로 조동과 같이 동으로 하고 면은 국수로서 국멸국물이 있음으로 습서가 되어 서편으로 한다.

• 飯東羹西(반동갱서)

조동습서와 같다 (밥) 불교용어로 (매밥) 국에 의해 된 것은 동편 국은 서편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이 동, 밥이 서로 하는 가문이 있다 이는 인식착오라 본다 홀기에는 분명이 서병정저라고 읽는다 죽수저자루를 서쪽으로 바르게 하라는 말이다

바로 발은 손으로 잡기 좋게 놓아 드리기 위한 절차의 문구로 소리청이고 밥그릇 국그릇은 반대로 한다면 리체에 빛나간 것이다.

• 果 實果(실과) 造果(저과)

실과는 천연산(天然山)인 열매로 양(陽)이라 하여 동편으로 조.울.시.이 순하고 조과는 인공과자(人工果子) 다식,산자,강정등을 음(陰)이라 하여 서편으로 설치한다.

• 청 동(東) 甘酒(식혜) 西(서)

청,조정은 오른쪽(집사자)떡위치 동편으로 하고 감주,식혜는 서편 면 국수앞에 한다.

이로서 제사의 제수식품을 진설하는 의식에 근본된 용어 구절의 문구임을 이에 결들였음이고 이것이 옛문학으로 유학의 전통이 되나 근거내맥을 잇은 채 모든 가문에 봉사(奉祀)하는 형식이 구구절절이고 보면 한심할 정도 보다 도 이 나라의 아름다운 봉사의례가 영원히 사라짐이 아닌가 함이다.

앞으로도 유교문화를 살리는 뜻에서 유교의 전통민속을 표출하여 사라지는 가례(家禮)를 널리 홍보하고 수천년 전 동방의 배달민족으로 이어받은 유풍을 온국민이 다 알고 모든 예를 서로가 베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시급하다.

• 본 그림에서 서쪽을 먼저 제 一병 잔을 드렸음은 신위의 오른손에 첫잔 드렸음은 다 음으로의 순이다.

• 예라 함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므로 이 역시 나의 상대가 됨으로 면을 대하니 그의 바라보는 방향 나와 반대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를 주로 베푸는 의례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항상 신위의 좌상식밖의 추측말이다.

